

# 참여기업 협업 · 양대노총 동참 큰 성과 일궈내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생산 1호차 '다리고 VAN' 출고

중소·중견기업 협업 통한 경쟁력 강화 '취지에 부합' 최대출력 80kW 모터 탑재 최대 206km 주행 가능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 대비 ABS 등 대폭 강화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받으면 구입가 1000만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생산 1호 차인 '다리고 VAN'의 출시는 대기업이 사라진 지역에 중소·중견기업 등 참여기업 생산 활동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취지에 부합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VAN 생산 협업사업을 통해 (주)대창모터스는 다마스·리보 대체 시장 선점을 위한 생산물량 확대가 가능해지고, (주)명신은 다양한 차종의 위탁생산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목표는 범위·규모의 경제 달성과 중복 투자 최소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사업 개시 후 3차 연도까지 효과총액 3.461억원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 간 공동생산 협력 ▲공공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활용 협력 ▲부품 고도화 등 공동 R&D협력 ▲인프라 공동사용 및 공동유통 양성 협력 ▲공공매개팅 및 공동유통 운영 협력 등 참여

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5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지난해 6월 별류체인 연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주)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차 완성차 4개 회사와 부품사 1개 회사가 참여해 2024년까지 5.171억원을 투자해 2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동참하는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월 25일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새만금 제1공구에 입주하는 (주)대창모터스는 지난해 9월부터 신규공장을 착공, 당초 계획보다 빠른 물 7억 초 완공 예정으로 6월 신규인력 88명을 채용했고, 7월부터 EV버스·트럭 2,200여대를 생산한다. (주)대창모터스 (주)MIS코리아, (주)코스텍도 7월 중 착공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와 이태규 (주)명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4일 (주)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1호차 생산 기념식'에 참석해 뱀 1~3호차량 기증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리고 VAN은 길이 4,090mm 전폭 1,655mm, 전고 1,900mm 크기이며, 스타렉스와 다마스의 중간 크기로 편리한 이동과 최대 550kg까지 적재할 수 있는 화물 공간을 확보해 탁월한 화물 운영능력을 보유한 화물차량이다. 5도어 타입의 2인용 소형 화물 전기차로, LG화학으로부터 공급받은 고효율 셀을 사용해 자체 개발한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장착됐다. 최대출력 80kW의 모터를 탑재해

최고속도 110km/h, 1회 충전으로 최대 206km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그간 소형화물차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비 ABS(브레이크 시스템), TCS(미끄럼방지), VDC(차량제어시스템), HAC(경사로 밀림방지), TPMS(타이어공기압 체크) 등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큰 특징이다. 판매가격은 출고가격 3,680만원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2,5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약 1,0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주)명신은 정부 상생형 일자리 선정 및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생산 1호차 생산 기념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차 구입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량 구입시 3% 초반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차량 구매 후 2년 이내 차량 반납시 차량 구입비를 전액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 승격 신설도로 개설 건의안 채택

전북 시·군의회의장협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가 24일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 승격 및 신설도로 개설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64차 월례회에서다. 협의회는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 승격 및 신설도로 개설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이 탄력을 받고, 국제협력 용지 활용 논의 가속화하면서 교통 SOC의 확대·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발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보리재배 농가의 판로가 좁아 농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보리재배 농가 생산 전담 구매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리 생산물량 전담 매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민주 전북도당, 28일

대선공약개발특위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제20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인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각 지역 국회의원 등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전북을 대표할 공약들이 개발될 것이고, 개발된 공약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정수 도의원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활용을"



전북도 내 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조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유치원은 유아교육 보조인력 인하여 교사의 손길을 많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 사업 중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보조인력' 투입으로 교사의 보육·교육 등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교처럼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이 분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유치원은 교육활동과 유아들의 생리적인 발달, 기본생활지도 등 개개인의 요구를 교사 1명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아교육 보조인력 투입 축소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전북도교육청의 단일한 불통행정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육아경험이 풍부한 50~60대 중·고령 여성들을 유치원 지원인력으로 활용한 3세대 하모니 지원봉사자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추진 사업을 유아교육 현장과 소통 없이 독단·독선으로 축소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유호상 기자

## “수서행 KTX 운영, 편익·안전성 ↑”

최영심 도의원, 철도서비스 지역간 격차 해소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제382회 정례회에서 '철도서비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수서행 KTX 운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영심 의원은 "교통서비스는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철도는 이동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망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전국에 고속철도망이 확대됐지만, 전북은 고속철도 이용에 큰 차별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 “혁신도시 기관 지역업체 이용 상생”

박용근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 지역업체 이용을 통한 상생 노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표본적으로 지역 상생을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적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대부분 이윤을 남기기에 어려움 100만 원대 납품이 대부분이고, 공사·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이용률은 더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 최근 드론과 관련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내 드론관련 교육기관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의 이동편의, 교육시설의 규모 등의 사유를 들어 타 시·도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을 위탁했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를 전혀 무

색하게 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물품구매 및 용역, 위탁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및 지역내 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과 이전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업체 이용에 적극 나서도록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등을 강화하고, 재화·서비스 공사·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병 의섭되면 '1339'로

## “민주당 대선 승리의 발판 만들 것”

박용진 의원, 전주 웨이집서

청년들과 간담회 열어

'이니시계' 깜짝 선물발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국회의원이 전주를 찾았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웨이집에서 전북 청년정치인인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김용권 전주시의원, 유충렬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을 만나 오찬을 겸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 연기 관련해서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예민하다"면서 "시간을 좀 풀어가 했으면 좋겠다. 국민 상식에 맞게 흥미진진한 논쟁 토론이 추가 돼서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국민 관심을 끄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우리당이 먼저 후보를 뽑는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땀만 인물은, 땀만 구도로는 안 된다. 박용진이 3등까지 갔으니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의 양자구도로 흥행에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전북 도민들께서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막내인 박용진을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해주셨으면 한다"면서 "경선 흥행도 성공시키고,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발판을 내가 만들겠다. 박용진이 주인공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웨이집을 방문해 식사를 한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가 웨이집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전주 완산구 웨이집에서 청년정치인 간담회 도중 청와대 시계(애칭 '이니시계')를 선물받고 있다.

사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계(애칭 '이니시계')를 깜짝 선물 받았다. 웨이집 사장님은 "5년 전 박용진 의원 봤을 때 꼭 대통령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출마하셨다"면서 "청와대 초청받았을 때 받은 시계를 선물로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지난번 전주 방문하고 나서 지지율이 올랐다"면서 "지금도 그 기운 그대로 받아서 이번엔 더 탄력 있게 나아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 덕성구에 위치한 전북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전북초등학교는 전북 장수가 고향인 박용진 의원이 2학년 때까지 다녔던 학교다. 박용진 의원은 흥해초교장선생님과 교실에서 "대통령 후보 나쁘다고

마음먹고 고향에 와서 다니던 학교에 온다고 하니가 설레었다. 교가도 기억나더라"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전북 초등학교에 간다고 말씀드리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에 흥해초교 교장선생님은 "박용진 의원님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학 간 학생 기록은 보관하지 않아서 아쉬웠다"면서 "지난 2016년 법안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 중일 때 행사장에서 한번 봤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장수군 범안면이 제 고향"이라며 "반갑고 기분도 좋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로 전학한 뒤에 1년에 한두 번씩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도 계셔서 전주도 오고 장수도 갔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가 전북초등학교에 한번 와봤는데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다"면서 웃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4기 예결특위 위원 11명 선임... 위원장에 김정수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위원장을 비롯한 11명 위원을 제11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은 김정수, 나기하, 김대중, 김종식, 이병철, 이한기, 정호윤, 최영심, 최찬욱, 한원수, 홍성민 의원이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들은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위원을, 부위원장에 나기하(더불어민주당, 군산1)위원을 선출하고, 7월 부터 제11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4기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수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5. 6. 7대 의원,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부의

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1대 4기 예산결산위원회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2022년 본예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는 9월경 심도있는 연찬회를 가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